

성장 정체에 점포수 첫 감소... 편의점 36년 질주 '끝'

시장 포화·소비 위축·비용 부담 3중고에 1586곳 줄어
매출 증가도 0.1%에 그쳐... 물가 상승률 따지면 역성장
초저가상품 선호 확산... 가격 경쟁력 열세에 침체 직격탄

국내 편의점 산업이 도입 3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점포 수 감소를 기록하며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장 포화와 소비 위축,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외형 확장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포 수는 5만3266개로 집계됐다. 전년(5만4852개)보다 1586개 줄어든 수치다. 1988년 국내에 편의점 산업이 도입된 이후 연간 점포 수가 감소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포 감소의 배경으로는 시장 포화가 가장 먼저 꼽힌다. 인구 약 1억2000만 명의 일본 편의점 점포 수가 5만7019개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은 이미 과밀 상태라는 평가다. 출점 경쟁이 이어지며 상권 중복이 심화됐고, 점포당 매출 증가 여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역시 점포 수익성을 압박했다. 여기에 경기 둔

화와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성장세도 급격히 둔화했다. 실제 편의점 4사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2023년 8.0%에서 2024년 3.9%, 2025년 0.1%로 빠르게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성장이라는 평가다. 구매 건수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 대비 구매 건수는 2024년 12월 1.9% 증가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12월에는 0.7% 감소했다. 초저가 상품 선호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의점이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점포 효율화 영향으로 점포당 매출은 소폭 개선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포 수는 5만3266개로 집계됐다. 롯데이노베이트

실제로 업계는 '전략적 폐점'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말 1만4265개였던 점포 수를 2024년 말 1만2152개로 줄였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700개 점포를 정리했다. 다른 업체들도 수익성 중심 철수와 점포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편의점 실적 역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업체의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출점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 전략은 당분간 제한적인 것"이라며 "부진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고 점포당 매출을 높이는 내실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해 말 기준 점포당 매출액은 5113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4898만3000원) 대비 4.4% 증가했다.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면서 평균 매출이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해운업계도 경기 침체... 구조조정 한파 몰아친다

국내 최대 해운업체 HMM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10월까지만 50세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신청을 받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청자에게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기본급 24개월치 이상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창업도 지원한다. HMM이 희망 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번째다. 2022년 근속 10년 이상 육상직 직원을 대상으로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 경영진은 이 프로그램을 일회성 구조조정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상설 트랙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벌크선 장기 운송계약 확대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힘입어 HMM은 지난해 4분기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호한 실적에도 50대 이상 조기 희망 퇴직을 다시 도입한 것은 해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은 공급 과잉과 운임 하락 우려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기준 글로벌 해상 운송 항로의 운



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은 10월까지만 50세 직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신청을 받는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HMM, 10일까지 만 50세 직원 대상 조기 퇴직 신청받아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 공급 과잉·운임 하락 우려 확산

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주(1457.86) 대비 141.11포인트 감소한 1316.75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2000포인트대까지 치솟았지만 1년 새 30% 가량 떨어졌다. 여기에 2026년까지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총 10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규모 신조 컨테이너선 인도가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 시장이 이어질 예정이

다. 해운조사기관 BIMCO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저성장일 경우 그치는 반면 선박(배)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량) 공급은 지난해 6%대, 올해 3%대 안팎 증가가 예상돼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의 주요 선사들도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시장 악화를 이유로 전 세

계에서 1만명 규모 인력 감축과 설비 투자 축소에 나섰다. 빈센트 클러 머스크 CEO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비용 구조를 새로 짜는 리셋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하프크로이트는 지난해 물동량이 늘었음에도 운임 하락과 비용 상승 탓에 영업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순차입(빚)보유 현금으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는 컨테이너 운임 약세와 선박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4X 장르 매출, MMORPG 추월

4일 센서타워에 따르면 1월 4X 전략 장르가 월간 매출 7000만 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MMORPG를 앞질렀다. 4X 전략 장르의 성장은 '하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주도했다. 두 게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국 모바일 게임 매출 TOP 5에 이름을 올리며 MMORPG 중심의 상위권 구도 속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4X 전략 장르가 처음으로 MMORPG 매출을 넘어섰다. 센서타워

하이트아웃 서바이벌은 전 세계 누적 매출 4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한국은 전체 매출의 14.5%를 기여해 미국과 중국 2025년 8월에는 한국 시장 기준 월 매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국 누적 매출의 57%가 2025년에 발생해 출시 이후 대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전 세계 누적 매출은 약 4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5.8%를 차지해 미국(36.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높았다. 4X 전략 장르 내 매출 상위권에는 2024년 12월 출시된 '라스트 Z'와 '킹샷' 등 신규 타이틀도 빠르게 합류했다. 라스트 Z와 킹샷은 2025년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기존 강자와 신작이 동시에 성과를 내며 4X 전략 장르 전반의 성장

을 가속화하고 있다. 킨슈머인사이드는 MMORPG 중심의 고과금, 장기 플레이 문화에 익숙한 한국 시장에서 4X 전략 장르가 MMORPG와 유사한 과금 구조와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사용자 획득 방식 역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센서타워 시장 규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하위 장르별 광고 노출 점유율을 살펴보면 4X 전략은 전체 모바일 게임 광고 노출의 약 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장르 내에서는 '킹샷'이 21%로 가장 높았고 '하이트아웃 서바이벌'이 18%로 뒤를 이었다. '라스트 워: 서바이벌'과 '라스트 Z'도 각각 11%의 노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